

<2012년 3월 24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야 승리한다.
2.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도 인간이 제 생각대로 하기에 망한다.
3. 인간은 생각대로 간다.
4. 생각이 가면 욕신도 따라간다.
5. 태양이 '불덩이'이듯,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사랑덩이'다. 태양이 '불'로 존재하듯이, 삼위체는 '사랑'으로 존재하신다.
6. 태양이 '불'로 존재하듯, 주님은 '구세주'로 존재하신다.
7. 주님은 용서의 존재자이시며, 죄를 청산해 주시는 구세주의 존재자이다.
8. 기도할 때 깊이 기도해야 한꺼번에 깨닫고 받는다.
9. 말도 그 자리에서 할 말을 해야 이해되고 전달된다.
10. 일도 할 때 매듭까지 지어야 깨끗하다.
11. 일의 매듭을 안 짓고 다른 일을 또 하면 갈 길을 가다 만 것이 된다.
12. 그때 할 일을 못 하면 몇 년씩 가게 된다.

<잠언 다시 시작>

1. ‘착각과 그릇된 인식관’이 자기의 생각을 얼마나 좌우하는지 알아라. 착각과 그릇된 인식관은 마치 못을 박아야 할 곳이 아닌데, 평생 안 빠지게 대못을 몇 개 때려 박은 것과 같다.
2. 자기가 뇌에서 결정했기에 잘못된 인식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옳은 줄로만 안다.
3. 착각과 그릇된 인식관을 얼마나 없애기 어려운지 알아라. 사실이 확인되어야 그제야 올바르게 인식한다.
4. 가령 상상 못 할 대호수를 보고 왔다 하자. 호수는 끝도 안 보이게 컸다. 고로 ‘바다’로 인식했다. 그는 누가 뭐라 해도 자기 눈으로 봤으니 대호수를 바다로만 인식하고 말한다. 그에게 다시 가서 썰물과 밀물이 없다는 것과 파도가 안 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전에는 모른다. / 기독교가 성경을 잘못 인식하고 착각하고 믿고 사는데 2000년 동안 그대로 믿고 왔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육신으로 오시고, 그때 땅에 있는 사람들의 육이 휴거된다고 믿고 산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영이 부활하고 나타나시고 승천하신 것을 다시 보여 주시어 그들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그 착각과 그릇된 인식관을 돌이킬 수가 없다.
5. 역사는 지나가서 다시 눈으로 볼 수가 없다. 고로 기록하고 찍어 봐야 된다.
6. 미래의 주님의 재림도 그때 당해서 확인하기 전에는 영만 온다는 것을 안 믿는다.

7. 다시 역사하고 돌이키려면 역사를 못 맞고, 주님의 재림도 못 맞고, 휴거도 못 맞는다.

8.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여 자기 육신의 행위로 자기 영을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시켜 그 날에 주님을 맞게 해야 된다. 그러니 그 날에 순간 바로 인식관을 돌이킨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을 맞겠느냐. 곧바로 그릇된 인식관을 돌이키고 미리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준비해야 자기 육신의 행실을 통해 영을 변화시켜 그 날에 주님을 맞아 휴거된다.